

(주)하림

올해 사업계획 목표 수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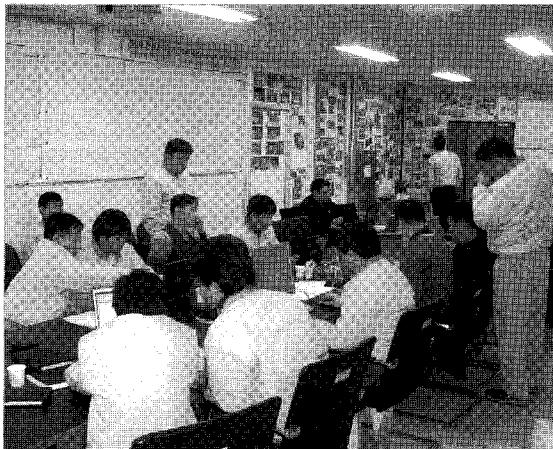
(주)하림(회장 김홍국)은 지난 1월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문용 사장을 비롯한 3본부장, 수도권·지방·특판사업부장, 각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부문의 2009년 기본 사업계획 목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매출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굳은 각오를 다짐하는 이날 목표 수여식에서 이문용 사장은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일 뿐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목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문하면서 단순화를 위해서는 일을 작게 나누고 매일매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SC팀의 서용법 과장은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목표 대비 10%이상 확대된 의지목표 운영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날 3본부장 홍윤원 상무는 "생산과 영업의 효율성 증대와 낭비요소 제거를 위해 선주문, 재고의 제로화는 꼭 필요하다"며 영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2009년 HMS 과제세팅 워크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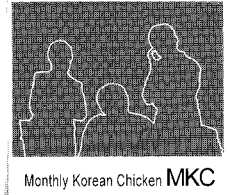
(주)하림은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09년 HMS 목표관리항목과 과제 세팅을 위한 워크샵을 각 본부와 지원직할 부문별로 실시했다.

이번 워크샵은 경영진의 방침이 본부, 사업부의 전략과 팀의 실행과제로 연결되어 2009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해의 결실을 계획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차례에 걸쳐 재검증됐다.

목표와 과제가 일단 세팅이 되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과제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월부터 Follow up 회의가 재가동 된다.

본부장은 월 1회 이상, 사업부장은 월 1~2회 이상, 팀장은 주 1회 이상 현장을 중심으로 진척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3년차에 접어든 HMS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장의 관심과 현장중심의 Follow up이 특히 중요하며, 부서원들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교육을 통해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는 팀이나 TFT 단위의 Family meeting을 통해 성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한 두 명의 생각과 능력을 중심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나 문제해결을 위한 그룹단위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실행으로 옮기는 이른바 일하는 방법도 바뀌어나가야 한다.

올해에는 HMS를 운영하는데 있어 부서별로 수준을 평준화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전 조직이 TP운영평가점수를 MBO로 설정해 관리하며, 매월 자기진단을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양궁선수단 농수산홍쇼핑으로 소속 이전

2005년 5월 창단한 하림 양궁선수단이 2009년 1월 1일부로 농수산홍쇼핑 양궁선수단으로 이전해 활동하게 됐다.

4년간 하림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대회를 석권한 양궁선수단은 최근 남교현 감독이 국가대표 코치로, 오진혁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무대를 제대한 이철수 선수를 보강해 전략이 더욱 강화된 하림그룹을 대표하는 양궁선수단으로 새 단장하게 됐다.

양궁훈련장, 숙소, 지역대표(전북)는 기존과 같으며, 2009년 9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주)마니커

#### 본사 사옥 이전계획 확정



(주)마니커(회장 한형석)는 오는 2월 21일 본사 사옥을 경기도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전한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 위치한 (주)마니커 본사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축 건물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도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마니커는 본사 사옥 이전을 계기로 2009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사업본부별 신년 산행

(주)마니커는 2009년을 맞아 경영지원본부가 1월 3일 수원 광교산, 영업본부가 1월 17일 북한산을 등반하는 등 사업본부별로 신년 산행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각오를 다졌다.

각 본부는 신년산행을 통해 동료간에 단합과 우의를 다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회·원·사·소·식



한편 영업본부는 산행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서울닭문화관을 찾아 단체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용인시 직거래장터 행사 참가



(주)마니커는 지난 1월 19일~22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청과 수지구청이 각각 마련한 설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역주민을 위한 이번 명절맞이 행사에는 용인을 대표하는 기업과 지역 특산물 등이 모두 참가했는데, 마니커는 다양하고 맛있는 육가공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았다.

### (주)체리부로

#### 2009년도 시무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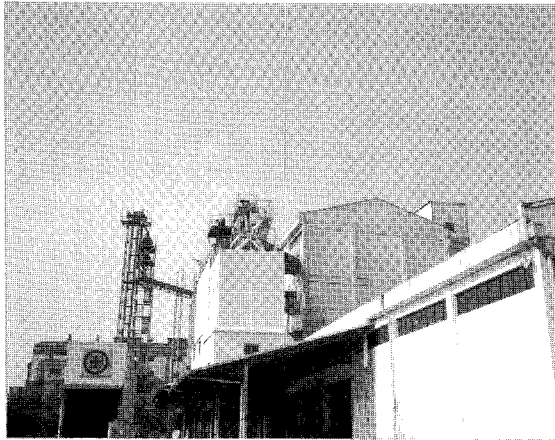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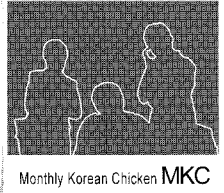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1월 2일 오전 전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2009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영업본부 이현택 상무는 2009년의 목표인 'BEST2009' (Basics:기본에 충실하며, Enthusiasm:열정적으로, Strength:역량을 강화하여, Top:최고의 기업이 된다)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김인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9년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임직원들의 마음가짐부터 TOP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사소한 것부터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주)체리피드 업무 개시

양계 배합사료 전문회사인 (주)체리피드가 지난 1월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주)체리피드는 체리부로의 100% 투자 자회사로서 2008년 1월 전북 익산시 신흥동 화성사로 공장 부지를 인수해 그 동안 개·보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정상 가동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있다.

(주)체리피드는 단일 품목만 대량 생산해 원료의 이동 및 저장 등으로 인한 제품의 교차오염 가능성이 제로이며 생산 품목을 바꿀 때 발생하는 공정 로스타임 또한 없다. 또 사육농가에 맞게 맞춤형 사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수요에 맞게 계획적인 생산을 통해 재고 누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체리부로의 사육농가에 보다 더 양질의 신선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대리점 및 중간 유통과정이 없이 농가에 바로 공급해 물류비를 50%나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곧 정상가동에 들어갈 (주)체리피드는 체리부로의 육계 계열화사업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이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동우

#### 2009년도 시무식 개최



(주)동우(대표이사 정창영)는 지난 1월 5일 새만금의 시작인 군산 비응도 팔각정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주)동우 임직원들은 2009년에도 지혜와 열정을 모아 즐겁게 일하며 서로가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계획된 목표와 성과를 이뤄 2009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동우가 될 것을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끝으로 계육산업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더 좋은 닭고기 만들 수 있도록 '올해도 더욱 열심히 일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무식을 마쳤다.

### (주)올품

#### 변부홍 대표이사 취임

(주)올품(대표이사 변부홍)은 지난 1월 2일 전



## 회·원·사·소·식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2009년 시무식과 함께 변부홍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새로 부임한 변부홍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국내 경제상황의 계속적인 악화로 인해 계육산업 또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공급과잉,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올품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도전하고 참여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 사람의 생각은 꿈일 뿐이지만 조직의 결집된 팀워크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며 “올품 가족 모두가 희망찬 변신과 힘찬 도약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말하고, 직원 한명 한명과 새해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

### 2009년 올품 임직원 한마음 등반대회

(주)올품은 지난 1월 14일 변부홍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의 명산 갑장산에서 “2009년 올품 임직원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영하의 날씨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올품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에 올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굳은 의지로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며 3시간의 산행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 변부홍 대표이사는 “한마음 등반대회를 통해 올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다”며 올품의 도전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또 “지금보다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올품의 응집된 힘을 100% 끌어 올린다면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 (주)매산에프에스

#### (주)매산에서 (주)매산에프에스로 상호 변경

(주)매산(회장 김종석)은 지난 1월 2일 도축사업에 관련된 사업일체를 새로운 법인 (주)매산에프에스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사업장소재지 등은 전과 동일하다.

(주)매산에프에스는 법인변경으로 2009년도에는 판매구조를 다각화하고, 대형 할인점, 냉동 신제품 개발, 자체 프랜차이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